

한국-스페인 정치 연설문 장르 무브분석

김미경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원덕

한국외국어대학교

김미경 외(2023), 한국-스페인 정치 연설문 장르 무브분석, 이베로아메리카연구, 34(3), 173-197.

초록 본고는 대한민국과 스페인 간 정치 연설문 장르에서 나타나는 담화 패턴 및 해당 패턴의 하위구조 규명을 목표로 한다. 연구 대상 텍스트는 한국어 13개, 스페인어 11개로 총 24개의 연설문을 분석했으며 한국어 코퍼스는 총 4,978개의 단어로 텍스트당 평균 382.92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었고 스페인어 코퍼스는 총 11,745단어로, 텍스트당 평균 1,067.73단어로 이루어져 있었다. 분석 결과, 모든 연설문에서 일관된 순서로 텍스트가 전개되는 것을 확인했으며, 도입, 양국 관계, 협력분야 및 마무리로 이루어진 네 가지로 무브가 확인됐다. 무브를 구성하는 하위구조인 스텝의 위치는 유동적이었으나 인사말, 감사, 참가자 언급과 같은 스텝은 도입과 마무리 무브에 제한적으로 확인됐다. 스페인어 텍스트는 한국어 텍스트 대비 평균 2.79배 긴 것으로 확인됐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어-스페인어 정치 연설문 장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어 무브분석, 코퍼스, 연설문, 스텝, 통역

I. 서론

대한민국 외교부에 따르면 서유럽에 위치한 스페인은 면적 50만 5,370km²로 한반도의 약 2.3배에 달하며, 2021년 기준, 인구는 4,743만 명이다. 스페인은 유럽연합 가입국으로 2023년 8월부터 의장국을 맡고 있는데 스페인은 대한민국과 1950년에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현재까지 꾸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대스페인 교역규모는 수출이 \$32억, 수입이 \$23억으로 기록되며 주요 교역 품목은 자동차,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합성수지, 식품 등이다. 이처럼 양국 간의 교류와 더불어 고위급 외교 관계가 증가하면서 외교적인 차원에서의 연결 빈도도 늘었다. 따라서 국가 간 외교와 관련된 통역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어-스페인어 통역 연구는 두 나라 간의 긴밀한 관계에 기여도가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연설을 분석해 이에 대한 이해도와 예측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한·스페인 간 중요한 정치적 교류는 1988년 소피아 왕비, 당시 펠리페 왕세자와 크리스티나 공주의 서울올림픽 방문을 시작으로 1996년 후안 카를로스 1세 국왕, 2000년 호세 마리아 아스나르 총리의 방문이 이어졌다. 2019년에는 펠리페 6세 국왕의 국빈방문, 2022년에는 페드로 산체스 총리의 공식방문¹⁾이 있었다. 대한민국 주요 인사의 스페인 방문은 1987년 노신영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2007년 노무현 대통령 국빈방문, 2021년 문재인 대통령 국빈방문, 그리고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NATO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이 이루어졌다. 대통령,

1) “외빈의 격(格)”과 관련해 대한민국 외교부는 국가원수, 행정수반인 총리, 행정수반이 아닌 총리(또는 부통령, 왕세자), 외교부 장관으로 구분하고 “접수의 격(格)”을 국빈방문, 공식방문, 실무방문, 사적방문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국빈방문(State Visit)은 우리 대통령의 임기 중 대통령 명의 공식 초청에 의한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인 총리의 방한이며 공식방문(Official Visit)은 우리 대통령의 임기 중 대통령 명의 공식 초청에 의한 외국 국가원수, 행정수반인 총리나 이에 준하는 외빈의 방한을 의미한다. 이처럼 국가 간 외교와 관련된 통역을 두고 한원덕은(2013, 84) 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문제 등에 있어서의 협력방안, 국경 분쟁, 인도적인 지원, 인사 교류 등 두 나라 이상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외교관들이 주관하고 참여하는 회의에서의 통역을 지칭해 왔다고 설명한다.

국왕, 총리 외에도 각 부처 장·차관, 국회의장, 서울시장, 대법원장 등이 상대국을 방문하며 협력을 다방면으로 증진하고 있다.

황창호 외(2015, 28)는 대통령 연설문에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그대로 녹아있으며 대통령의 정치적 행위 및 국정운영의 방향을 직간접적으로 예측할 수 있으나 연설이 어떠한 유형이나 경향, 그리고 어떠한 특징 등을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시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Van Dijk(2003) 또한 이러한 분석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신뢰할 만한 관찰이나 타당한 분석은 명쾌하고 체계적인 방법론 없이 할 수 없으므로 담화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러 학자의 지적대로 양국 정치 장르 연설문 구조와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통역 전략 개발에도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곧 통역 품질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특히 통역은 단어나 문장의 단순 치환이 아닌 특정한 목표를 가진 담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텍스트의 의미를 수용해 그 의미를 쌓아가며 전달하는 작업이므로 거시적인 맥락과 배경에 대한 이해도가 더욱 중요하다. 통역 수요가 존재하는 텍스트의 유형, 경향, 특징의 체계적인 이해가 또한 필요하다. 따라서 위의 추세와 필요를 고려해 양국의 정치 연설문 장르 구조와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활용해 통역 전략을 개발한다면 통역 교육과 품질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배경

1. 장르

장르연구는 수사학과 언어학을 포함한 연구 분야로 Swales(1990)에 의해 발전됐다. 라틴어에서 유래한 장르는 불어로 ‘유형’을 뜻한다. Bhatia(2002, 3)는 장르분석이란 첫째, 제도화된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루어진 세상의 복잡한 현실을 반영하고 둘째, 교육학적으로 효과적이며 언어 학습 프로그램 설계에 유용한 도구라고 주장했다.²⁾ Swales(1990, 58)는 장르를 ‘커뮤니케이션 상황의 유형

2) 김미경(2015)의 번역.

Heron *et al.*, 2023). 그러나 이후 장르분석이 웹사이트(Stein *et al.*, 2011), 미술(Işık, 2023), 비즈니스(Dos Santos, 2002), 기업감사(Flowerdew *et al.*, 2010), 대통령 연설문(Liu, 2012), 기술(Luzón, 2005)과 같은 다양한 연구 분야로 확장됐다. 또한 미시적 맥락에서 커뮤니케이션 목표라는 거시적 맥락으로 관심이 점차 발전했다.

1) 장르분석과 통번역

Biel(2017, 151)의 정리에 따르면, 번역학 연구는 1970년대에는 주로 텍스트 유형에 관심을 가졌으며 1990년에 이르러 장르분석이 중요도를 갖기 시작했다. 장르분석은 초기에는 담화분석 기법의 하나로 사용됐으나 이후 코퍼스가 추가되며 다양한 장르분석 연구로 발전했다. 과거 장르분석은 질적연구에 초점을 맞췄으나 최근에는 코퍼스 기법의 도입으로 양적연구, 특히 어휘 문법적 분석이 활발히 수행되며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휘 문법적 분석 외에도 Zhang *et al.*(2015)이 1990년과 2013년 사이 8개의 번역학술지에 실린 담화분석 논문을 고찰한 결과 1996년과 2005년 사이 장르와 어역분석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1990년대에는 특수목적을 위한 번역에서 출발언어(SL)와 도착언어(TL)를 비교·분석하는 흐름이 두드러졌다고 정리했다. 그러나 그 후에는 권력, 이념, 맥락과 같은 언어외적 요소로 관심이 집중됐음을 언급하며 언어 이외의 요소 또한 연구 대상으로 확대됐음을 보여주었다.

House(2001, 248)는 어역은 텍스트와 미시맥락 사이의 연결을 포착하는 반면 장르는 텍스트를 담고 있는 언어문화 공동체의 거시맥락을 텍스트와 연결한다고 설명하며 둘을 구분했다. House는 어역을 담화 장(주제 분야와 사회적 행동), 담화 관계(발신자의 시간적, 지리적, 사회적 배경(즉, 기원)은 물론, 그(녀)의 지적, 정서적 또는 감정적 입장(그(녀)의 ‘개인적인 관점’)을 포함하는 개념), 담화 매체(‘채널(구어/문어)’뿐만 아니라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참여도로 세분화해 분석한 바 있다(Munday, 2006).

소프트웨어 활용을 통한 거대 규모의 텍스트가 코퍼스 분석이 가능해지며 장르분석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됐다고 Biel(2017)은 주장했다. 또 언어학에서의

장르분석은 장르 간 차이를 규명한다면 번역학에서는 장르분석을 기반으로 전반적인 구조, 관습, 기대가 다른 언어와 문화에 있는지를 확인한다고 주장했다. Biber(2007, 36)는 코퍼스 기반 담화분석을 양적 접근만이 아닌 양적, 질적 분석으로 설명했다. 코퍼스 분석이지만 연구자가 무브와 무브 유형을 분류한 후 의사소통 목적을 판단하는 양적 분석을 한다는 것이다. 번역학에서 밝혀낸 바에 의하며 담화 커뮤니티가 서로 다르므로 서로 다른 장르 사이에 관습이 다를 뿐 아니라 동일한 장르라 하더라도 언어와 문화별로 차이가 있다(Baker 1992, 183-186).

2) 정치장르

정치 장르 연구는 주로 청중이나 상대를 설득하는 연설문을 중심으로 진행해 왔다. 이러한 연구는 발화자와 그가 대표하는 단체나, 정당, 또는 국가의 목표, 가치 및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된다. 정호윤(2023)의 설명에 따르면 대통령 연설문은 지도자의 가치와 철학을 담고 있으며, 연설문을 통해 국내 외적으로 국가비전, 국정철학 및 정책기조가 효율적으로 전달된다.

정치 장르 발화자의 언어를 구조화해 이를 이루는 주제, 내용을 분석해 발화자나 그가 대표하는 기관 및 국가가 어디에 중요도를 두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구조의 형태로도 위 의도를 상당 부분 파악할 수 있으며 발화자가 사용하는 언어의 분석으로도 발화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 목표 및 전략 이해에 도움이 된다. Halliday(1994)는 체계기능문법을 통해 언어란 사용자가 의도한 의미를 이루게 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정치 연설문 연구는 이념이나 가치(박준형 외, 2017; 이창길, 2010; 정호윤, 2023)를 다루거나 언어적 측면(김영준 외, 2019; 이정복, 2003; 권왕원 외, 2013)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최근에는 정호윤(2023)의 연구 사례와 같이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해 빈도수 분석을 추출하는 기법도 적용되고 있다.

국내와 해외에서 대통령 연설문 분석 관련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졌다. 스페인어권 대통령 연설문 분석에는 최홍주(2017)의 연구가 있으며 통번역 관련 정

치 연설문 분석 사례로 한국어와 영어의 능동 수동 번역 유형 연구를 진행한 고선정(2020), 러시아 대통령 취임사의 시제분석을 진행한 방교영(2015), 그리고 한국과 중남미 대통령 연설문의 무브분석을 진행한 김미경(2023)의 연구가 있다. 김미경(2023)은 한국과 중남미 대통령의 국빈방문 장르의 연설문을 무브 분석한 연구를 수행했다.

3) 무브분석과 어휘분석

Swales는(1990) 장르분석을 큰 틀에서 무브분석과 어휘분석으로 구분했다. Swales는 무브가 텍스트 내에서 일관된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한다고 주장했으며 Biber *et al.*(2007, 23) 또한 특정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한다고 하며 무브마다 각각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Biber *et al.*(2007, 15)은 무브에 대해 특정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하는 텍스트의 구간으로 정의하며 무브분석은 텍스트의 구조를 하향식(top-down approach)으로 살펴보는 분석방법으로 소개했다. 무브를 통해 텍스트 주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다른 장르간 무브의 차이를 드러내기 때문에 한 장르의 특징을 규명하고 다른 장르와의 차이를 구분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사용된다. 무브는 텍스트의 구조를 보다 미시적으로 구분한 소단위인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휘분석은 연구목적에 따라 분석범위를 설정하고 진행된다. 어휘분석 방법으로 어휘다양도(Type-token ratio), 고빈도 어휘, 문장 수, 문장 길이 분석 등이 있다. 예컨대 학술논문 장르에서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영어로 학술논문 텍스트 작성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어휘분석의 범위를 설정하고 분석한다. 초기에는 학술논문 장르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 요리, 연설문, 경제 등 다양한 장르로 확대됐다.

비버 외(2007, 39)는 코퍼스 내의 각 무브유형의 빈도와 각 무브의 평균 단어 수를 분석한 후, 특정 무브 유형이 의무적인지 선택적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무브간 단어 수의 차이를 생성하는 원인을 밝히는 것이 후속 연구의 주요 질문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무브분석의 경우 수동 작업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므로 주로 소규모 코퍼스로 진행됐음을 언급하고 또

무브분석에는 정량적 분석이 제한적임을 지적했다. 연구목적에 따라 무브분석 대상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의 골자이다.

본 연구는 수동 분석이 요하는 무브분석을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면서도 어휘분석을 일부 활용해 한국-스페인 정치 장르 연설문의 무브와 그 특성을 체계적으로 탐구한다.

III. 분석

본 연구의 한국어 텍스트는 대통령실, 대통령기록관,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검색했다. 스페인어 텍스트는 스페인 왕실 홈페이지, 총리실 홈페이지, 그리고 외교부에서 수집했다. 검색 결과 고위급 연설문은 국왕, 대통령, 총리급에서 검색됐으며 1996년 이전 텍스트는 검색되지 않았다. 이처럼 입수 가능한 한서 고위급 연설 코퍼스는 총 한국어 13개, 스페인어 11개로 총 24개 텍스트로 이루어졌다.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정의한 고위인사를 바탕으로 선택한 정치 연설문이며 한국과 스페인 상호 방문 중 이루어진 행사에 한정된 텍스트이다. 한국어 텍스트는 김영삼 대통령 1건, 노무현 대통령 5건, 문재인 대통령 6건, 윤석열 대통령 1건으로 구성됐으며 스페인어 텍스트는 후안 카를로스 1세 국왕 4건, 펠리페 6세 국왕 4건, 페드로 산체스 총리 3건으로 구성됐다. 외교장관 교류 연설문은 양국 모두 확보 불가해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다.

〈표 1〉 한국어 텍스트 개요

텍스트	연설국가	행사	날짜(연월)	연설자	총 단어수
1-1-1	대한민국	만찬	1996-10	김영삼	490
2-1-1	스페인	만찬	2007-2	노무현	254
2-1-2	스페인	시청	2007-2	노무현	159
2-1-3	스페인	오찬	2007-2	노무현	219
2-1-4	스페인	상원	2007-2	노무현	190
2-1-5	스페인	비즈니스포럼	2007-2	노무현	492
3-1-1	대한민국	정상회담	2019-10	문재인	133
3-1-2	대한민국	비즈니스포럼	2019-10	문재인	677

〈표 1〉 계속

텍스트	연설국가	행사	날짜(연월)	연설자	총 단어수
4-1-1	스페인	경제인협회연례포럼	2021-6	문재인	428
4-1-2	스페인	의회	2021-6	문재인	601
4-1-3	스페인	비즈니스포럼	2021-6	문재인	494
4-1-4	스페인	관광산업라운드테이블	2021-6	문재인	480
5-1-1	대한민국	공동언론발표	2022-11	윤석열	361
평균					382.92

<표 1>에 제시되어 있듯 총 13개 텍스트가 분석 대상이다. 텍스트 번호는 세 자리로 구성되며 첫 번째 자리는 방문을, 두 번째 자리는 사용된 언어(한국어 1번으로 표기), 세 번째 자리는 텍스트의 고유 번호를 나타낸다. 첫 번째 자리인 방문은 총 5번까지 있는데 다섯 번의 국민방문을 각각 표시하는 것이다. 1은 1996년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 스페인 국민방문, 2는 스페인에서 이루어진 대한민국 국민방문을 의미한다. 전체 번호의 경우, 1-1-1은 스페인 국민의 한국방문 중 한국 대통령의 첫 번째 연설문을 나타내며 2-1-2는 스페인 국민의 한국방문 중 한국 대통령의 두 번째 연설문을 나타낸다.

연설은 대한민국과 스페인에서 국민 방문 및 공식방문으로 이루어졌으며 행사유형은 오만찬이 3건, 기관방문이 3건, 비즈니스, 경제 및 관광 행사가 5건, 양국정상이 참여한 정상회담과 공동언론발표가 2건으로 구성됐다. 날짜 정보는 연도와 월까지 포함됐으며 1996년에서 2022년까지 26년간 발화된 연설문이다. 한국어 텍스트 연설자는 김영삼, 노무현,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이며 코퍼스의 총 단어수는 4,978개로 텍스트당 평균 382.92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표 2〉 스페인어 텍스트 개요

텍스트	연설국가	행사	날짜(연월)	연설자	총 단어수
1-2-1	대한민국	국회	1996-10	Juan Carlos I	1472
1-2-2	대한민국	오찬	1996-10	Juan Carlos I	630
2-2-1	스페인	만찬	2007-2	Juan Carlos I	1040
2-2-2	스페인	비즈니스포럼	2007-2	Juan Carlos I	663
3-2-1	대한민국	서울시청	2019-10	Felipe VI	603

텍스트	연설국가	행사	날짜(연월)	연설자	총 단어수
3-2-2	대한민국	비즈니스포럼	2019-10	Felipe VI	1032
3-2-3	대한민국	만찬	2019-10	Felipe VI	561
4-2-1	스페인	만찬	2021-6	Felipe VI	814
5-2-1	대한민국	공동언론발표	2022-11	Pedro Sanchez	710
5-2-2	대한민국	비즈니스포럼	2022-11	Pedro Sanchez	2694
5-2-3	대한민국	한·스페인 포럼	2022-11	Pedro Sanchez	1526
평균					1,067.73

스페인어 연설은 대한민국과 스페인에서 진행된 다양한 행사에서 이루어졌으며 행사유형으로는 오만찬이 4건, 기관방문이 2건, 비즈니스, 경제 및 관광 행사가 4건, 양국정상이 참여한 공동언론발표가 1건으로 구성됐다. 스페인어 텍스트 연설자는 후안 카를로스 1세, 펠리페 6세 국왕과 페드로 산체스 총리이다. 스페인어 코퍼스의 총 단어수는 11,745개로 텍스트당 평균 1,067.73단어를 포함한다.

수집된 자료에 관한 정보는 엑셀(Excel) 프로그램을 사용해 체계적으로 정리됐다. 텍스트는 각각 텍스트 문서(.txt)와 워드(Word) 프로그램으로 저장한 후 사전 처리 및 검토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했다. 예컨대 연사가 상대언어로 인사를 할 때 옆에 괄호로 그 의미를 표기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Encantado(만나서 반갑습니다)”→ “Encantado”).

| 182 |

산출했으며 워드 문서는 무브분석에 사용했다. 이러한 무브분석 결과는 엑셀을 활용해 정리했다.

총 24개 텍스트를 분석해 무브별 주제, 순서, 비중 그리고 무브의 소단위인 스텝을 분석했다. Biber(2007, 39)의 정의에 따르면 의무적 무브는 텍스트의 97%에서 나타나며 선택적 무브는 15%의 비중으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무브가 의무적(obligatory), 또는 선택적(optional) 유형인지 확인했다. 위 분석을 기반으로 한국-스페인 정치 연설문 장르의 공통점과 개별적인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IV. 분석 결과

1. 한국어 텍스트 무브분석

한국어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 무브1의 평균 단어수는 39.15개로 나타났다. 무브2의 평균 단어수는 152.77, 무브3의 평균 단어수는 162.46개, 무브4의 평균 단어수는 28.54로 확인됐다. 무브별 비중 순위는 다음과 같다: 무브3. 협력분야(41.17%), 무브2. 양국관계(39.36%), 무브1. 도입(12.17%), 무브4. 마무리(7.29%).

무브2의 비중이 무브3보다 높은 텍스트는 전체 13개 중 7개로 확인됐으며, 무브 2와 3의 비중은 텍스트마다 다양하게 다루어졌다.

무브3. 협력분야의 스텝은 교역관계, 양국관계, 외교협력, 향후협력, 개인경험, 상대경험, 상대국치하, 협력방안, 방문언급, 동포부탁 등으로 이루어졌다. 무브2. 양국관계에 나타난 스텝은 상대치하, 문화교류, 개인경험, 상대국치하, 동포부탁, 협력기대, 해결방안, 양국강점, 향후협력, 협력근거, 자국치하, 상대국 현황, 향후기대, 양국치하, 양국관계, 국제현안 등으로 구성됐다. 이 스텝들은 특정한 무브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무브에서 나타난다. 양국관계, 향후협력, 개인경험, 상대국치하 스텝이 무브3과 4에 사용됐다.

무브1. 도입에서는 참석자언급, 환영, 감사, 상대국치하, 상대치하, 방문언급,

〈표 3〉 한국어 텍스트 무브분석표

텍스트	1	2	3	4
	무브1. 도입	무브2. 양국관계	무브3. 협력분야	무브4. 마무리
1-1-1	참석자언급 환영	상대치하 문화교류	교역관계 상대경험 언어·문화교류 외교(대북) 향후협력 개인경험	방문언급 건배제의 감사
단어수 (%)	40(8.16%)	192(39.18%)	219(44.69%)	39(7.96%)
2-1-1	참석자언급 감사	개인경험 상대국치하 상대치하	교역관계 문화교류 동포부탁	건배제의
	31(12.2%)	121(47.64%)	85(33.46%)	17(6.69%)
2-1-2	참석자언급 감사	상대국치하 문화교류 동포부탁	선물감사 양국관계	인사 감사
	12(7.55%)	69(43.4%)	71(44.65%)	7(4.4%)
2-1-3	참석자언급 감사 상대국치하 상대치하	양국관계	협력분야 향후협력	건배제의
	104(47.49%)	51(23.29%)	44(20.1%)	20(9.13%)
2-1-4	참석자언급 방문언급 감사	개인경험 상대국치하 자국치하 협력기대	향후협력	감사
	28(14.74%)	100(52.63%)	51(26.84%)	11(5.79%)
2-1-5	참석자언급 감사 문제제기	해결방안 협력가능성 양국강점 향후협력 협력근거 자국치하	향후협력 상대국치하 협력방안	지원다짐 성공기원 감사
	32(6.5%)	72(14.63%)	369(75%)	19(3.86%)
3-1-1	방문언급	상대국치하	향후협력	방문언급 성공기원 감사
	17(12.78%)	42(31.58%)	61(45.86%)	13(9.77%)

〈표 3〉 계속

테스트	1	2	3	4
3-1-2	참석자언급 인사 (상대언어) 상대치하	상대국치하 자국치하 협력기대 양국관계(한-EU) 양국관계(한스)	향후협력 -디지털·경제· 친환경에너지· 건설·인프라	상대국치하 양국관계 향후협력 감사 (상대언어)
	43(6.35%)	263(38.85%)	295(43.57%)	76(11.23%)
4-1-1	참석자언급 방문언급 행사명 감사 양국관계	스페인현황 (COVID19) 향후기대 향후협력 양국치하	협력분야 -에너지·반도체· ICT 방문언급 향후협력	향후협력 협력분야 감사
	66(15.42%)	191(44.63%)	95(22.2%)	76(17.76%)
4-1-2	참석자언급 인사 감사	상대국치하 방문언급 자국치하 양국치하 상대국치하 양국관계 향후협력	협력분야 -에너지·디지털· 경제·제3국 공동 진출·건설인프라· 5G·전기차·문화· 예술·관광	참석자언급 향후협력 감사 성공기원 감사
	36(5.99%)	342(56.91%)	177(29.45%)	46(7.65%)
4-1-3	참석자언급 행사언급 감사	양국치하 양국관계 -외교 -경제	향후협력 협력분야 -에너지경제·제3국 디지털경제·제3국 공동진출 향후협력	상대국치하 성공기원 감사
	54(10.93%)	83(16.8%)	324(65.59%)	33(6.68%)
4-1-4	인사 참석자언급 감사	COVID19영향 -관광 향후협력 스페인치하 자국치하	향후협력 -외교·관광· 에너지·디지털	감사
	38(7.92%)	368(76.67%)	73(15.21%)	1(0.21%)
5-1-1	참석자언급 방문언급	양국관계 상대국치하	협력분야 -에너지·해외건설· 제3국 공동진출· 관광 향후협력 -문화·관광· 한반도· 우크라이나	향후협력 감사
	8(2.22%)	92(25.48%)	248(68.7%)	13(3.6%)

의문제기, 인사, 행사명 스텝으로 구성됐다. 무브4. 마무리에서는 방문언급, 건배제의, 감사, 인사, 지원다짐, 성공기원, 상대국치하, 양국관계, 향후협력, 참석자언급의 스텝으로 이루어졌다.

무브 2와 3에서 사용된 스텝인 상대국치하, 양국관계, 향후협력은 무브1, 4에도 사용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무브1과 4에서 나타난 참석자언급, 환영, 감사, 인사, 행사명, 건배제의는 무브2와 3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스텝은 연설문의 시작과 마무리에서 사용되는 표현으로 무브 1과 4에서만 한정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무브와 스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것은 한국-스페인 외교 방문 시 발화된 연설문이 참석자 언급, 환영, 감사, 인사와 같은 기본적인 요소로 시작하며 이를 통해 상대와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로 각국의 강점을 언급하는 자국치하 및 상대국치하 스텝이 많이 사용됐다. 또한 상대국 방문 시 동포부탁 스텝도 두 차례 사용됐다.

한국어 연설문의 특징 중 하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협력분야가 더욱 구체화한다는 점이다. 1996년과 2007년까지의 텍스트에는 전반적인 협력에 관한 언급을 했으나 2019년 이후 텍스트에는 에너지, 경제, 건설·인프라, 반도체, 문화, 예술, 관광 등 다양한 분야가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또한 실질적인 협력 결과가 언급돼 2007년 이후 협력이 구체적으로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스페인 외교협력이 발전됐음을 보여주며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스페인어 텍스트 무브분석

<표 4>에서도 한국어 텍스트와 마찬가지로 네 가지 무브인 도입, 양국관계, 협력분야, 마무리로 분석됐다. 또한, 네 가지 무브는 모두 동일한 순서로 전개됐으며 비중은 무브3, 2, 4, 1 순으로 높았다.

무브3은 평균 506.36 단어로 전체의 47.44%를 차지했으며 무브2는 384.82

〈표 4〉 스페인어 텍스트 무브분석표

텍스트	1	2	3	4
	무브1. 도입	무브2. 양국관계	무브3. 협력분야	무브4. 마무리
1-2-1	참석자언급 방문언급	양국관계 향후협력 양국관계	향후협력 상대국치하 향후협력 상대국치하	축하 성공기원 감사
단어수 (%)	63(4.28%)	606(41.17%)	765(51.97%)	38(2.58%)
1-2-2	참석자언급 감사	상대국치하 자국치하 양국관계	향후협력	방문언급 협력기대 감사
	51(8.1%)	369(58.57%)	147(23.33%)	63(10%)
2-2-1	참석자언급 방문언급	양국치하 양국관계	향후협력(남북) 교역관계 향후협력 -교역·문화 상대국치하	성공기원 건배사 감사
	100(9.62%)	314(30.19%)	581(55.87%)	45(4.33%)
2-2-2	참석자언급 행사언급	양국관계 참석자언급 양국 차이 및 공통점 양국치하	향후협력 상호보완 행사계기 참석자 격려 향후협력 -비즈니스 방문언급	행사언급 축하 성공기원 감사
	20(3.02%)	403(60.78%)	204(30.77%)	36(5.43%)
3-2-1	방문언급 감사 개인경험 방문일정	방문언급 상대도시치하	상대도시치하 자국치하 양국협력 협력분야 향후협력	상대치하 감사 성공기원 감사
	134(22.22%)	81(13.43%)	272(45.11%)	116(19.24%)
3-2-2	감사 참석자언급 행사언급 주최측언급 감사	상대국치하 행사언급 향후협력 양국관계 각국현황	향후협력 -IT·신재생에너지· 교육·문화·관광 양국관계(외교)	참석자 언급 향후협력 감사
	217(21.03%)	431(41.76%)	327(31.69%)	57(5.52%)

〈표 4〉 계속

텍스트	1	2	3	4
3-2-3	개인경험	방문언급 양국관계 양국치하 양국공동점 향후협력	양국관계 -관광	감사 참석자 언급 건배
	74(13.19%)	211(37.61%)	174(31.02%)	102(18.18%)
4-2-1	방문언급 행사언급	COVID19영향 양국치하 양국공동점	향후협력 -교역·투자· 3국 공동진출 양국치하 협력분야 -인적교류·문화· 예술·언어· 스포츠·관광	건배제의 방문감사 협력기대 감사
	71(8.72%)	300(36.86%)	352(43.24%)	91(11.18%)
5-2-1	감사 방문자언급	국제관계 -북한규탄 양국관계 -사고 애도 양국관계	협력분야 -경제 방문언급 협력분야 -교육·문화 일정언급 협력분야 -과학·혁신·외교· 통상·관광·기후· 평화·우크라이나· 에너지·식량· 공공부채 향후협력(EU)	방문언급 협력분야 -통상경제문화 향후협력 감사
	4(0.56%)	251(35.35%)	364(51.27%)	91(12.82%)
5-2-2	인사(상대언어) 감사 참석자언급 주최측감사 방문언급	양국관계 양국치하 향후협력 국제정세 자국강점 향후협력	협력분야(EU) -교역·관광·기술 협력분야(스페인) -교역·화학·토목· 부동산·자동차· 항공기·폐기물관리· 신재생에너지 향후협력 -교역·투자·제3국 공동진출·문화 -자국치하 협력분야 -전기차·반도체· 신재생에너지· R&D 중소기업· 스타트업	양국치하 협력기대 감사(자국언어, 상대언어)
	54(2%)	920(34.15%)	1447(53.71%)	273(10.13%)

〈표 4〉 계속

텍스트	1	2	3	4
5-2-3	참석자언급 행사언급	향후협력 양국관계 행사언급 국제정세 -COVID19 -우크라이나 향후협력	양국관계 -외교 상대국치하 방문언급 향후협력(EU) 국제정세 -북한·우크라이나 행사언급 자국치하 향후협력 -언어	감사 양국관계 -문화 성공기원 감사(자국언어, 상대언어)
	96(6.29%)	347(22.74%)	937(61.4%)	146(9.57%)

단어로 36.05%, 무브4는 96.18 단어로 9.01%, 무브1은 80.36 단어로 7.53%를 차지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각 무브의 중요성과 비중을 확인할 수 있으며 무브3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무브3. 협력분야에서는 한국어 텍스트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1990년대에는 구체적인 협력분야의 언급이 제한적이었지만 2019년 이후 연설문에서는 구체적인 협력분야가 명확하게 나열되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고위급 교류 이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상호협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다층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무브3을 이루는 주요 스텝은 향후협력, 상대국치하, 양국협력, 협력분야(교역, 관광, 기술, 화학, 토목, 부동산, 자동차 등), 그리고 국제정세이다. 국제정세와 관련해 북한 핵 개발에 대한 규탄과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에 관한 입장을 지지하거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이는 협력분야뿐 아니라 국제정세에의 스페인의 입장을 반영한다.

무브2. 양국관계에는 양국치하, 향후협력, 양국공통점, 국제정세 위주로 스텝이 이루어져 있다.

무브4. 마무리에서는 주로 축하, 성공기원, 감사, 협력기대, 참석자 언급, 건배제의 스텝이 사용되며 연설문을 마무리하며 상대 국가와의 협력을 강조하며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한 긍정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무브1. 도입에서는 참석자 언급, 방문언급, 감사, 행사언급이 스텝에 주로 사용돼 방문의 목적, 주최측의 노고에 대한 감사 및 참석자와의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한국-스페인 정치 연설문 장르를 분석한 결과, 도입, 양국관계, 협력분야, 마무리로 구성된 네 개의 무브구조가 나타났으며 무브를 구성하는 스텝은 고정된 무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무브에 사용됐다. 그러나 마무리와 도입의 경우 인사, 감사, 참석자 언급, 건배제의와 같이 일부 스텝은 무브2, 3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아 특정 무브에 고정적으로 나타나는 성격을 보였다. 1990년대 연설문의 경우 한국어와 스페인어 텍스트 모두 협력분야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으나 2007년 이후에는 과거 대비 상세하게 협력분야를 다루었다. 1996년의 초기 연설문에서 경제 및 문화협력이 거시적으로 언급됐던 반면 시간이 지나며 협력분야가 구체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다. 2007년 스페인 국왕은 디자인, 혁신, 기술, 브랜드, 환경, 인프라, 금융, 관광 분야를 언급했으며 2019년 스페인 국왕은 화학, 토목, 부동산, 폐기물 관리와 같이 더 구체적인 협력분야를 짚으며 양국의 관계가 더 다양한 분야에서 더 구체적으로 확대됐음을 알 수 있다. 스페인은 EU 가입국으로, 한국과의 협력과 관계를 언급할 때 EU 틀에서 협력이 세 차례 언급됐다. 이는 모두 스페인 총리 연설에서 언급됐는데 차기 EU 의장국이 스페인이라는 내용을 강조해 스페인뿐 아니라 EU 공동체로서 한국과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

상대와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전략으로 상대언어로 인사나 감사를 표현하는 경우도 한국어 코퍼스에서 두 차례, 스페인어 코퍼스에서 세 차례 확인됐는데 모두 2019년 이후에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참석자언급도 한국어 코퍼스에 13회, 스페인어 코퍼스에서 12회 확인됐다. 스페인어 코퍼스에서 영어차용의 사용도 확인했는데 스페인어로 직역할 수 있는 국제행사명을 영어 그대로 사용했다.

무브 및 스텝 분석을 통해 한국-스페인 외교방문 연설문에 나타나는 언어적

패턴과 메시지의 구성을 구조적으로 확인했다. 이러한 분석은 연설문의 단순한 텍스트 구조를 넘어 각 국가가 중요하게 추진하는 정책이나 노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텍스트에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구조뿐 아니라 각 무브가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 각국의 우선순위와 관심사를 파악했다. 특히 한국과 스페인의 관계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주제를 확인할 수 있어 양국의 외교 현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통역하기에 앞서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배경지식을 쌓고 단어를 숙지할지에 대한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위 정보는 통역 전략 수립에만 유용한 것이 아니라 양국 간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고 의사소통을 효율화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특히 각 무브와 스텝에서 다루어지는 주제와 메시지 파악을 통해 메시지를 더 효과적으로 해석하고 예측하고 전달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V. 결론

본 연구를 통해 한국-스페인 정치 연설문 24건을 무브분석한 결과 모든 텍스트에서 1. 도입, 2. 양국관계, 3. 협력분야, 4. 마무리로 네 개의 무브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스페인어 텍스트 모두 3. 협력분야, 2. 양국관계 무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무브의 소단위인 스텝은 텍스트 간 반복된 형태로 나타나 일정한 장르를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무브 1, 4의 스텝은 대체로 무브 2, 3에 등장하지 않았다. 즉 1. 도입과 4. 마무리는 2. 양국관계, 3. 협력분야보다 고정된 형태의 구조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초기 양국방문 연설문에서는 협력분야나 양국관계가 전반적으로 언급되는 수준이었다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양국관계가 발전돼 기 협력 분야와 향후 협력분야 및 협력 가능분야가 상세하게 제시되는 특징을 보였다.

특정 스텝이 하나의 무브에 고정되지 않았는데 이는 Swales가 제시한 방법을 따른 기존의 무브분석 연구 결과들과 맥을 같이 한다. 연설문 도입과 마무리에 나타나는 인사나 감사 등의 스텝은 상당히 고정된 형태를 보이나 전반적으

로 스텝의 위치는 유동적임을 알 수 있었다. 스페인은 차기 EU 의장국으로 EU 라는 큰 지역 차원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스페인이 EU 의장국을 수행하는 동안 EU 전체 틀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참석자 언급 스텝은 한국어 코퍼스 13회, 스페인어 코퍼스 12회로 확인돼 대부분 연설문에서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분석을 바탕으로 통역 교육이나 실무현장에서 연설문 구조를 예측하고, 국제행사명이 매번 스페인어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스페인어 사용자들 간에 합의가 있을 시 영어 그대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고 통역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스페인이 EU 의장국을 맡은 동안 EU 전체 상황 및 EU 하에서의 스페인의 입지와 역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텍스트는 내외빈 참석자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요 참석자와 행사 주최측 명단을 파악해서 준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무브분석 외 어휘적 특성을 일부 살펴본 결과 스페인어 텍스트가 한국어 텍스트 대비 평균 2.79배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어와 스페인어 텍스트 간 길이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로 주목할 수 있다. 한국 코퍼스는 총 13개 텍스트, 4,978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텍스트당 평균 단어 수는 382.92개이다. 이에 대비 스페인어 텍스트는 총 11개 텍스트, 11,745 단어로 이루어졌으며 텍스트당 평균 단어 수는 1,067.73으로 나타났다. 스페인어 텍스트는 한국어 텍스트 대비 두 개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총 단어 수만 보더라도 두 배가 넘는다. 스페인어 텍스트가 한국어 텍스트 대비 두 배 이상 길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통역 준비시 스페인 측의 관심사를 더 상세히 정리하고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스페인과 한국의 연설 텍스트 길이의 차이에 대한 정보를 외교부나 관계 부처 통역 담당자에게 공유해 의전 측면에서 민감할 수 있는 양측 연설 시간을 보다 조화롭게 조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스페인어 텍스트라도 행사 명칭을 영어를 차용해 사용하는 사례를 코퍼스에서 확인했다. 따라서 통역사가 행사 명칭을 스페인어로 항상 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장르 관습을 확인 후 영어로도 사용할 수 있음을 참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스페인 정치 연설문 장르 무브분석을 통해 양국의 연설문 구조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전체 텍스트에서 무브는 네 개로 구분됐으며 의무적 형태를 지녔다. 이는 연설문 구조에 대한 예측도를 크게 높일 수 있는 결과이다. 예측이 통역 결과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위 무브 특성을 참고한다면 통역 품질향상 및 교육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를 통해 무브분석과 일부 언어분석 수행을 통해 한국-스페인 고위인사 연설문 구조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문어와 비교해 연구가 부족했던 구어 텍스트를 바탕으로 통역 현실에 맞는 텍스트의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에는 상세한 언어분석을 통해 전체 커뮤니케이션이 만들어지는 언어적 요인 또한 밝혀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중남미 정치 연설문 장르와의 비교를 통해 무브 및 어휘 차이를 분석해 실제 스페인과 중남미 정치장르 연설에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차이의 정도를 확인하는 것도 한국어-스페인어 연설문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통역 결과물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고선정(2020), 「한국어와 영어의 능동-수동 번역 유형 연구 - 한미 대통령 연설문을 중심으로 -」, 언어유형론연구, Vol. 5, No. 1, pp. 21-36.
- 권향원, 최도림(2013), 「대통령의 언어적 상징 전략에 대한 연구: 역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의 공식 연설문 분석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Vol. 19, No. 3, pp. 285-320.
- 김미경(2015), 「한국어-스페인어 동시통역의 장르분석 연구」, 박사학위 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 김미경(2023), 「한-중남미 대통령 연설문 무브분석-대한민국 대통령 중남미 방문 사례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Vol. 27, No. 2, pp. 27-46.
- 김영준, 김정일(2019), 「대한민국 대통령의 언어스타일: 연설문에 나타난 언어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 인지과학, Vol. 30, No. 3, pp. 105-132.
- 먼데이, 제레미(2006). 『번역학 입문-이론과 적용』, 정연일, 남원준 옮김,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박준형, 유호선, 김태영, 한희정, 오효정(2017), 「대통령 연설기록 내용분석을 통한 역대 대통령의 중심가치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Vol. 17, No. 2, pp. 57-78.
- 방교영(2015), 「푸틴 대통령 취임사의 시제분석 - 언어행위로서의 담화와 번역에 관하여」, 통번역학연구, Vol. 19, No. 2, pp. 67-87.
- 이정복(2003), 「대통령 연설문의 경어법 분석」, 배달말, Vol. 33, pp. 213-237.
- 이창길(2010), 「정권 초기의 가치지향과 정책우선순위: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언어네트워크 비교분석」, 한국행정정보, Vol. 44, No. 3, pp. 165-189.
- 정호윤(2023),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연설문(2003~2010) 분석을 통한 국정운영 및대외정책 중심가치 연구」, 인문사회 21, Vol. 14, No. 3, pp. 6105-6120.
- 최홍주(2017), 「Cristina Fernández의 대통령 선거연설문 분석」, 이베로아메리카, Vol. 19, No. 2, pp. 59-97.
- 한원덕(2013), 『스페인어 통역교육론』,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황창호, 이혁우, 임동완(2015), 「역대 대통령 연설문의 유형과 특징에 대한 비교 연구: 연설문의 유형, 분야, 주제, 시점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Vol. 29, No. 4, pp. 27-50.
- Baker, Mona(1992), *In other words: A coursebook on translation*, London, New York: Routledge.
- Bhatia, Vijay(2002), “Applied genre analysis: A multi-perspective model,” *Ibérica: Revista de la Asociación Europea de Lenguas para fines específicos (AELFE)*, Vol. 4, pp. 3-19.
- Bhatia, Vijay(2012), “Critical reflections on genre analysis,” *Ibérica*, Vol. 24, pp. 17-28. <https://revistaiberica.org/index.php/iberica/article/view/290>
- Biber, Douglas(2007), *Discourse on the Move: Using Corpus Analysis to Describe Discourse Structure*, Amsterdam: John Benjamins.
- Biel, Łucja(2017), “Genre analysis and translation,” *The Routledge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and Linguistics*, Abingdon, New York: Routledge, pp. 151-164.
- Cross, Cate & Oppenheim, Charles(2006), “A genre analysis of scientific abstracts,” *Journal of Documentation*, Vol. 62, No. 4, pp. 428-446.
- Dos Santos, VBM Pinto(2002), “Genre analysis of business letters of negotiation,”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Vol. 21, No. 2, pp. 167-199.

- Flowerdew, John & Wan, Alina(2010), "The linguistic and the contextual in applied genre analysis: The case of the company audit report,"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Vol. 29, No. 2, pp. 78-93.
- Halliday, Michael Alexander Kirkwood(1994),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3rd ed.), London: Arnold.
- Heron, Marion & Corradini, Erika(2023). "A genre-based study of professional reflective writing in higher education," *Teaching in Higher Education*, Vol. 28, No. 3, pp. 504-516.
- House, Juliane(2001),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Linguistic description versus social evaluation," *Meta*, Vol. 46, No. 2, pp. 243-257.
- Işık Elvan Eda(2023), "A corpus-based genre analysis of promotional-informational discourse in online painting exhibition overviews,"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Vol. 70, pp. 44-56.
- Liu, Fang(2012), "Genre analysis of American Presidential inaugural speech," *Theory & Practice in Language Studies*, Vol. 2, No. 11.
- Luzón, María J.(2005), "Genre analysis in technical communication," *IEEE Transactions on Professional Communication*, Vol. 48, No. 3, pp. 285-295.
- Martín, Pedro Martín(2003), "A genre analysis of English and Spanish research paper abstracts in experimental social sciences,"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Vol. 22, No. 1, pp. 25-43.
- Salager-Meyer, Françoise(1990), "Discoursal flaws in medical English abstracts: A genre analysis per research-and text-type," *Text-Interdisciplinary Journal for the Study of Discourse*, Vol. 10, No. 4, pp. 365-384.
- Stein, Benno; Eissen, Sven Meyer zu & Lipka, Nedim(2011), "Web genre analysis: Use cases, retrieval models, and implementation issues," *Genres on the web: Computational models and empirical studies*, pp. 167-189.
- Stein, Wayne Paul(1997), *A genre analysis of the TESOL conference abstract*, Oklahoma State University.
- Swales, John M.(1990), *Genre analysis: English in academic and research sett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an Dijk, T.(2003), "La multidisciplinariedad del análisis crítico del discurso: un alegato a favor de la diversidad," *Métodos de análisis crítico del discurso*, pp. 143-177.

Zhang, Meifang, *et al.*(2015), “Mapping discourse analysis in translation studies via bibliometrics: A survey of journal publications,” *Perspectives*, Vol. 23, No. 2, pp. 223-239.

인터넷 자료

Casa Real(스페인 왕실 홈페이지), accessed August, 2023

<https://www.casareal.es/ES/Paginas/home.aspx>

La Moncloa(스페인 총리실 홈페이지), accessed August, 2023

<https://www.lamoncloa.gob.es/Paginas/index.aspx>

대한민국 대통령실, accessed July, 2023

<https://www.president.go.kr/>

외교부 홈페이지, accessed August, 2023

https://www.mofa.go.kr/www/nation/m_3458/view.do?seq=104

유럽연합 이사회, accessed September, 2023

<https://www.consilium.europa.eu/en/council-eu/presidency-council-eu/>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accessed July 2023

<https://www.pa.go.kr/index.jsp>

김미경

한국외국어대학교

kimpark11@gmail.com

한원덕

한국외국어대학교

hcarlos@hufs.ac.kr

논문투고일: 2023년 11월 27일

심사완료일: 2023년 12월 18일

게재확정일: 2023년 12월 21일

Move analysis of Political Speech Genr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ingdom of Spain

Mi-kyung, Kim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Won-dug, Ha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im, Mi-kyung & Han, Won-dug(2023), "Move analysis of Political Speech Genr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ingdom of Spain",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34(3), 173-197.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discourse patterns within the genre of Political Speech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ingdom of Spain and define its substructures. A total of 24 speeches, comprising 13 in Korean and 11 in Spanish, were analyzed. The Korean text corpus consists of a total of 13 texts with 4,978 words, averaging 382.92 words per text. In contrast, the Spanish text corpus comprises 11 texts with 11,745 words, averaging 1,067.73 words per text. The results revealed a consistent order in all speeches, which included four main moves: Introduction, Bilateral Relations, Cooperation, and Conclusion. Furthermore, the study explored the steps, or sub-components within each move. While the location of these steps within the moves displayed some flexibility, certain steps, such as salutation, appreciation, and the mention of participants, were predominantly found in the Introduction and the Conclusion moves. Spanish texts are, on average, 2.79 times longer than Korean texts.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contribute to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conventions associated with Korean-Spanish Political Speech genre.

Key words Move analysis, corpus, speech, step, interpretation